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Effects of Significance of Study, Pressure for Study and Succ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부교수 김혜원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연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김민

Department of Youth Culture and Counseling,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ewon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Professor : Songyon Cho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Counseling, Suncheonh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n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plored effects of significance of study, pressure for study, and pressure for succes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nd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rticipants were 1,384 adolesc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they responded all the questionnaires by themselve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tent of significance of study, pressure for study and succ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orresponding Author : Songyon Ch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268 Anso-dong, Dongnam-gu, Cheonan-si, Chungnam-do, 330-713, Korea Tel: +82-41-560-8133 Fax: +82-41-560-8101 E-mail: sycho@hoseo.edu

variables. Secondly, the more they got significance on study, and the more their parents emphasized study and success, the low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Finally,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s adolescents had a positive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the negative effects for the significance of study and pressure for study and success on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lessened.

주제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공부압력(pressure for study), 성공압력(pressure for success), 부모-자녀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 서론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력의 양적 측면은 세계 11위권이다. 그러나 경제력의 질적 측면은 19위에 머물고 있고 삶의 질은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26위에 그치고 있다(복지뉴스, 2007. 3. 2; 한국일보, 2006. 6. 29).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박경애, 이명선, 조은경, 1994)에서 대상자의 51%는 삶에 대해 보통 정도로 만족하고, 28%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35%가 삶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경애와 조은경(1997)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행복하다고 보고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복도는 어떠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1%만이 행복하고, 44%는 불행하다고 보고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행복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09년 5월에 보고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적, 학교 재학률, 학업열망 등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20개국 중 2위로서 높은 삶의 질 수준을 나타냈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진미석,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이들 연구들은 부모나 교사 및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박영신, 김의철, 2008), 학업성취, 부모애착, 외모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되며(이주리, 2009),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상호교환적으로 작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냄(정현주, 이주리, 2009)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먼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외, 2000;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이 시기 청소년들의 공부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최병주(1999)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학업 스트레스이며, 이와 함께 부모의 권위적인 훈계나 편애, 도덕적으로 일탈된 언행이 표면화될 때 아동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보고하였다. 김혜원과 홍미애(2007)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은 가정환경이 성취지향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더 낮았다. 같은 맥락에서 장혜정(2005)은 부모의 권유나 친구의 압력이 아닌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사교육을 수강할 때 아동들의 학습동기가 가장 높고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경숙(2006)도 과외학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초등학생들은 불안, 대인애민성, 강박증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보이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존재하는 학업과 성공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부, 시험, 성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초등학생과 교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정나은(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 공부를 하며, 시험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모로부터의 성적으로 인한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는 공부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책무성과 기대로 인식하고, 시험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며, 성적은 학생을 대하는 태도의 잣대로 여겼다. 보다 구체적으로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5)은 청소년과 부모가 갖고 있는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한국인들이 성취와 관련하여 나타내는 네 가지 심리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인은 노력을 성취의 핵심 원인으로 보는 '자기조절 경향성'을 지니며, 둘째, 가족의 정서적 지원은 성취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보며, 셋째, 학업성취가 한국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봄으로써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며,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추구를 중시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지닌다. 결국 현대의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상당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학업이나 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수의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요인이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갖는 긍정적 관계이다(소옥현, 2005; 안현정, 2005; 이영숙, 2001;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한지선, 2006). 이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부유할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이영숙, 2001),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소옥현, 2005) 자녀의 우울성향이 낮고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한지선(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높았다. 최희철, 황매향과 김연진(2009)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인과적 효과가 있어 청소년이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가질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이러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안현정(2005)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65편의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부모변인군, 자녀변인군, 환경변인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는 환경변인군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에는 가족구성원 내의 많은 상호작용과 관계, 적응성, 응집성, 대화시간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공부와 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만, 부모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은 의미 있게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성향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박현선(1998)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해준다. 즉, 공부압력은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 간 애정과 신뢰의 부족은 전 문제영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자녀관계를 통제할 상태에서 공부압력의 영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애정과 신뢰는 공부압력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소수 연구를 제외하고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공부나 성취압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중재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어 이에 대한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중·고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이나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양상은 학교급별로 매우 상이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 정도와 이와 관련된 공부와 성공압력의 관계를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관계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중재적인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공부압력과 성공압력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생들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삶의 만족도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초·중·고생들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중·고생들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삶의 만족도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초·중·고생들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은 중재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국 5개 권역(서울/경기·경상·전라·충청·강원)의 인구를 고려하여 대표지역을 선정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4월 16일까지 각 지역의 초(4-6학년)·중·고등학생 1,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항목이 누락한 경우를 제외한 1,38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54.2%)이 남학생(45.8%)보다 약간 더 많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표집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정소득수준은 중간계층(57.2%)이 가장 많았고, 낮은 계층(21.4%)과 높은 계층(21.4%)은 비슷하였다. 부모교육수준은 아버지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384)

범주	하위범주	빈도(%)
성	남	634(45.8)
	여	750(54.2)
	계	1,384(100)
출생 순위	첫째	686(50.3)
	둘째	568(41.7)
	셋째 이상	109(7.9)
	계	1,363(100)
학교급	초등학교	436(31.5)
	중학교	434(31.4)
	일반계고교	284(20.5)
	전문계고교	230(16.6)
	계	1,384(100)
총 가족수	2명	12(0.9)
	3명	134(9.9)
	4명	843(62.1)
	5명	283(20.9)
	6명 이상	85(6.3)
	계	333(100)
종교	불교	193(14.3)
	기독교	422(31.3)
	천주교	123(9.1)
	기타	52(3.8)
	무교	557(41.4)
계	1,347(100)	
가정 소득 수준	낮음	128(9.5)
	약간 낮음	160(11.9)
	중간	769(57.2)
	약간 높음	166(12.3)
	높음	122(9.1)
계	1,345(100)	
부 교육 수준	중졸이하	88(6.8)
	고졸	421(32.4)
	전문대·대졸	611(47.0)
	대학원졸	181(13.9)
계	1,301(100)	
모 교육 수준	중졸이하	99(7.7)
	고졸	588(45.3)
	전문대·대졸	505(38.9)
	대학원졸	107(8.2)
계	1,299(100)	

의 경우에 전문대와 대졸(47%), 어머니의 경우에 고졸(45.3%)이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절반가량(50.3%)이었고, 총 가족수는 4인 가족(62.1%)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공부 중요성 인식 척도

응답자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공부의 내적 기능 3문항

(잠재력개발, 적성발견 등), 외적 기능 4문항(좋은 직업, 명예 획득 등), 타인지향적 기능 3문항(타인돕기, 사회기여 등), 행복복지향적 기능 1문항 등 총 11개의 문항을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방법은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기능에 대해 공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가 .89이고, 내적 기능은 .79, 외적 기능은 .84, 타인지향적 기능은 .79였다.

2) 공부압력 척도

공부에 대한 압력은 부모로부터 공부의 중요성과 높은 성적에 대해 받는 압력의 정도를 의미하며(예: '부모님은 내가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고 늘 말씀하신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4점 척도의 5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해 더 많은 강조와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7이었다.

3) 성공압력 척도

성공에 대한 압력은 부모로부터 좋은 대학, 사회적 성공, 좋은 직업, 명예 등에 대해 받는 압력의 정도를 의미하며(예: '부모님은 내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신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4점 척도의 5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성공에 대해 더 많은 강조와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5였다.

4)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사용하였다. PACI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10문항(예: '부모님은 항상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신다')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10문항(예: '나는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의 5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Cronbach's α 가 .90,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Cronbach's α 가 .79였다.

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5문항으로 제작한 삶의 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척도로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평가하며(예: '대체로 나의 삶은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표 2〉 학교급별 청소년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소·최대값

		변인	척도치	M	SD	최소값	최대값
초등학생 (n = 436)	공부 중요성 인식	4	2.72	0.69	11	44	
	공부 압력	4	2.77	0.80	5	20	
	성공 압력	4	2.68	0.80	5	20	
	개방적 의사소통	5	3.64	0.88	12	50	
	역기능적 의사소통	5	2.42	0.74	10	44	
	삶의 만족도	7	4.61	1.43	5	35	
중학생 (n = 434)	공부 중요성 인식	4	2.25	0.68	11	44	
	공부 압력	4	2.76	0.75	5	20	
	성공 압력	4	2.65	0.73	5	20	
	개방적 의사소통	5	3.33	0.79	10	50	
	역기능적 의사소통	5	2.61	0.68	10	50	
	삶의 만족도	7	4.10	1.22	5	35	
일반계고 (n = 284)	공부 중요성 인식	4	2.22	0.64	11	44	
	공부 압력	4	2.74	0.76	5	20	
	성공 압력	4	2.68	0.71	5	20	
	개방적 의사소통	5	3.26	0.82	10	50	
	역기능적 의사소통	5	2.75	0.66	10	46	
	삶의 만족도	7	3.73	1.29	5	35	
전문계고 (n = 230)	공부 중요성 인식	4	2.05	0.65	11	44	
	공부 압력	4	2.51	0.78	5	20	
	성공 압력	4	2.58	0.70	5	20	
	개방적 의사소통	5	3.18	0.80	12	50	
	역기능적 의사소통	5	2.71	0.59	12	46	
	삶의 만족도	7	3.54	1.09	5	33	
전체 (N = 1,384)	공부 중요성 인식	4	2.36	0.71	11	44	
	공부 압력	4	2.72	0.78	5	20	
	성공 압력	4	2.65	0.74	5	20	
	개방적 의사소통	5	3.39	0.85	10	50	
	역기능적 의사소통	5	2.60	0.69	10	50	
	삶의 만족도	7	4.09	1.34	5	35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3였다.

6)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거주지, 학교급, 학년, 성, 부모교육수준, 가정소득수준, 출생순위, 출가족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설문지는 선정된 학교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답입교사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수합하여 다시 우편으로 연구진에게 우송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 검증, F 검증 및 사후검증(Duncan test)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 상호상관을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PC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교급별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삶의 만족도

학교급별 청소년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표준편차)과 최소·최대값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을 나타냈으며, 공부를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고, 이후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점차 높았다. 한편, 공부압력과 공부의 중요성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공압력은 일반계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았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초등학생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N = 1,384)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삶의 만족도
학 교 급	초등학교	29.97(7.58) _c	13.86(4.01) _b	13.26(4.00)	36.41(8.75) _c	24.21(7.36) _a	23.04(7.14) _c
	중학교	24.80(7.43) _b	13.78(3.77) _b	13.24(3.66)	33.27(7.93) _b	26.12(6.81) _b	20.48(6.09) _b
	일반계고교	24.46(6.99) _b	13.71(3.82) _b	13.42(3.53)	32.56(8.22) _{ab}	27.46(6.62) _c	18.67(6.46) _b
	전문계고교	22.54(7.14) _a	12.54(3.91) _a	12.91(3.48)	31.75(8.04) _a	27.06(5.89) _{bc}	17.69(5.43) _a
	<i>F</i>	67.38***	6.75***	.99	21.87***	16.21***	45.01***
성	남	25.56(8.12)	14.30(3.87)	13.67(3.71)	33.59(8.31)	26.61(6.86)	20.50(6.87)
	여	25.49(7.59)	12.98(3.83)	12.93(3.69)	34.09(8.59)	25.39(6.95)	20.45(6.72)
	<i>t</i>	2.52*	6.33***	3.73***	-1.09	3.25***	.24
부 교 육 수 준	중졸	25.31(6.41) _a	12.62(3.72) _a	12.42(3.55) _a	32.51(9.25) _a	27.18(7.53)	19.37(6.09) _a
	고졸	24.85(7.61) _a	13.31(3.83) _{ab}	13.02(3.63) _{ab}	33.24(7.69) _{ab}	26.02(6.14)	19.47(6.39) _a
	전문대·대졸	26.07(7.92) _a	13.69(3.88) _b	13.34(3.70) _b	34.37(8.68) _{ab}	25.66(7.30)	21.11(6.73) _b
	대학원졸	28.32(8.09) _b	14.09(4.03) _b	13.86(3.70) _b	34.84(8.61) _b	25.94(7.34)	21.78(7.01) _b
	<i>F</i>	8.62***	3.22*	3.46*	2.83*	1.02	7.95***
모 교 육 수 준	중졸	25.38(7.09) _a	12.12(3.60) _a	12.14(3.72) _a	33.66(3.16) _a	25.55(6.36)	19.39(5.47) _a
	고졸	25.17(7.68) _a	13.50(3.92) _b	13.20(3.66) _b	33.27(7.82) _a	26.21(6.45)	19.71(6.32) _a
	전문대·대졸	26.35(8.00) _a	13.76(3.91) _b	13.44(3.73) _b	34.65(8.94) _a	25.53(7.31)	21.21(6.95) _b
	대학원졸	28.60(7.80) _b	14.10(3.46) _b	13.68(3.67) _b	36.59(8.60) _b	24.97(8.28)	23.50(7.14) _c
	<i>F</i>	6.70***	4.74**	3.24*	5.94***	1.49	12.81***
가 정 소 득 수 준	매우 낮은 편	25.42(8.24) _{ab}	13.53(4.18)	12.94(4.38)	29.28(10.03) _a	29.61(7.17) _d	14.75(5.47) _a
	낮은 편	23.87(6.97) _a	12.98(4.25)	12.93(3.69)	31.16(8.70) _{ab}	26.73(6.96) _c	17.40(6.79) _b
	약간 낮은 편	23.94(7.13) _a	13.36(3.85)	12.96(3.67)	31.28(7.73) _{ab}	27.81(5.96) _{cd}	17.35(5.75) _b
	비슷한 편	26.05(7.68) _{ab}	13.58(3.88)	13.18(3.70)	33.97(8.06) _{bc}	25.70(6.69) _{bc}	20.57(6.23) _c
	약간 높은 편	26.53(8.00) _{ab}	14.00(3.79)	14.02(3.63)	34.84(8.25) _{cd}	25.74(7.45) _{bc}	22.66(7.04) _d
수 준	높은 편	29.26(8.49) _c	13.84(3.86)	13.62(3.73)	37.39(8.92) _d	23.86(7.17) _{ab}	24.13(6.39) _d
	매우 높은 편	28.17(8.97) _{bc}	13.48(3.99)	13.07(4.36)	42.93(6.48) _e	23.03(9.93) _a	27.52(5.68) _e
	<i>F</i>	6.37***	.85	1.73*	15.45***	6.37***	29.70***
종교	불교	27.15(8.15)	13.84(3.82)	13.57(3.68)	34.92(8.53) _b	25.15(6.85) _a	21.31(6.64) _{bc}
	기독교	25.96(7.69)	13.61(3.87)	13.21(3.82)	34.25(8.49) _b	25.76(7.00) _a	20.71(6.92) _{abc}
	천주교	25.72(7.93)	13.28(3.71)	13.25(3.38)	35.22(8.77) _b	25.37(8.14) _a	21.70(7.08) _c
	무교	25.61(7.81)	13.54(4.01)	13.18(3.72)	33.15(8.21) _{ab}	26.36(6.64) _{ab}	19.75(6.49) _{ab}
	기타	27.31(8.32)	14.12(4.08)	13.33(3.83)	31.35(9.16) _a	27.87(7.29) _b	19.50(6.70) _a
<i>F</i>	1.77	.63	.41	3.94**	2.40*	3.78**	

주. a, b, c, d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이 가장 많이 하고 전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전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삶의 만족도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학교급에 따라 성공압력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생이 공부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압력도 가장

많이 받으며,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장 적게 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도 가장 높았다. 반면, 전문계 고등학생은 공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공부에 대한 압력도 가장 적게 받으며,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가장 적게 하며, 삶의 만족도 수준도 가장 낮았다.

둘째, 성에 따라서는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부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압력을 더 많이 받으며,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도 더 많이 하였다.

셋째, 부모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학원졸이상인 경우에 청소년은 공부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압력을 가장

〈표 4〉 학교급별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

		공부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초 등 학 생	공부압력	.33***				
	성공압력	.36***	.71***			
	개방적 의사소통	.02	-.24***	-.02		
	역기능적 의사소통	.08	.38***	.28***	-.36***	
	삶의 만족도	-.01	-.17***	-.00	.55***	-.35***
중 학 생	공부압력	.22***				
	성공압력	.20***	.73***			
	개방적 의사소통	.04	-.28***	-.15**		
	역기능적 의사소통	.12*	.38***	.35***	-.43***	
	삶의 만족도	.05	-.15**	-.06	.50***	-.23***
일 반 계 고	공부압력	.19**				
	성공압력	.13*	.75***			
	개방적 의사소통	-.01	-.31***	-.23***		
	역기능적 의사소통	.04	.44***	.34***	-.53***	
	삶의 만족도	.11	-.20***	-.22***	.39***	-.35***
전 문 계 고	공부압력	.25***				
	성공압력	.28***	.66***			
	개방적 의사소통	.01	-.33***	-.19**		
	역기능적 의사소통	-.01	.34***	.22**	-.50***	
	삶의 만족도	.11	-.01	-.05	.38***	-.27***

* $p < .05$. ** $p < .01$. *** $p < .001$.

많이 받으며,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가장 적게 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도 가장 높았다. 반면, 부모가 고졸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에 청소년은 공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가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에 대한 압력을 가장 적게 받고,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가장 적게 하는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도 가장 낮았다.

넷째, 가정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공부압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공부를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성공에 대한 압력을 적게 받으며,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반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약간 높거나 매우 높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적게 하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다섯째, 종교와 관련해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삶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은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도 더 높았다.

3. 학교급별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삶의 만족도의 상호 상관

학교급별로 청소년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삶의 만족도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학교급에서 공부 중요성 인식은 공부압력, 성공압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공부나 성공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받을 수록 공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공부 중요성 인식과 공부압력($r = .33$), 성공압력($r = .36$)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나 이들 변인 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공부압력은 모든 학교급에서 성공압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해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성공에 대한 압력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부압력은 모든 학교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공부압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일수록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초·중·일반계고·전문계고에서 모두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성공압력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로부터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하고, 역기능적인 의사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성공압력이 역기능적 의사소통($r = .28, p < .001$)과 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초·중·일반계고·전문계고 학생 모두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더 적게 하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상관정도가 더 컸는데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r = -.53$).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공부 중요성 인식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공부압력은 전문계 고등학생을 제외한 초, 중,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성공압력은 유일하게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r = -.22, p < .001$)를 보여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든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청소년들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성공압력은 유일하게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r = -.22, p < .001$)를 보여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든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청소년들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4. 학교급별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학교급별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재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VIP를 산출해본 결과, 초등

〈표 5〉 초등학교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및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N = 435)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1	공부 중요성 인식	-.348	.133	-.370**
	공부압력	-.480	.401	-.270
	성공압력	.022	.398	.013
2	공부 중요성×개방적 의사소통	.009	.004	.508**
	공부압력×개방적 의사소통	.008	.011	.191
	성공압력×개방적 의사소통	.004	.011	.109

주. 제1단계 $R^2 = .050$; 제2단계 $\Delta R^2 = .275$
 ** $p < .01$.

〈표 6〉 중학생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및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N = 434)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1	공부 중요성 인식	-.313	.107	-.381**
	공부압력	-.552	.382	-.341
	성공압력	.309	.398	.186
2	공부 중요성×개방적 의사소통	.011	.003	.581***
	공부압력×개방적 의사소통	.013	.012	.315
	성공압력×개방적 의사소통	-.006	.012	-.141

주. 제1단계 $R^2 = .028$; 제2단계 $\Delta R^2 = .231$
 ** $p < .01$, *** $p < .001$.

〈표 7〉 일반계 고등학생의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N = 434)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1	공부 중요성 인식	.404	.125	-.493***
	공부압력	-1.253	.452	-.774**
	성공압력	1.137	.471	.683*
2	공부 중요성×역기능적 의사소통	-.011	.004	-.518**
	공부압력×역기능적 의사소통	.036	.016	-.952*
	성공압력×역기능적 의사소통	-.032	.017	-.816

주. 제1단계 $R^2 = .028$; 제2단계 $\Delta R^2 = .064$
 * $p < .05$, ** $p < .01$, *** $p < .001$.

학생은 1.196~2.190, 중학생은 1.058~2.093, 일반계 고등학생은 1.047~2.228, 전문계 고등학생은 1.093~1.733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기본 가정을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급별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을 독립변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초등학생, 중학생,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중재효과가 없었다. 유의미한 중재효과에 대한 결과들은 <표 5>, <표 6>, <표 7>과 같다.

초등학생은 공부의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 중 공부의 중요성 인식($\beta = -.370, p < .01$)만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약 5% 정도였다. 다음으로 이들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부의 중요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의미 있는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08, p < .01$). 이는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지만,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를 중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중재효과가 포함된 변인들이 초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27.5%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의 중요성 인식($\beta = -.381, p < .01$)만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전체 변량의 약 3% 정도였다. 공부의 중요성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재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중학생들이 공부를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지만,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켜줌을 보여준다. 중재효과가 포함된 변인들이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약 23%였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공부의 중요성 인식($\beta = -.493, p < .001$), 공부압력($\beta = -.774, p < .01$)과 성공압력($\beta = .683, p < .01$)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지만, 부모로부터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약 3% 정도였다. 이에 대해 부모의 의사소통이 중재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공부의 중요성 인식($\beta = -.518, p < .01$)과 공

부압력($\beta = -.952, p < .05$)이 의미 있는 중재효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만,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아짐을 보여준다. 중재효과가 포함된 변인들이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약 6%에 불과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느끼는 공부의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 성공압력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재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었다.

둘째, 학교급에 따라 공부압력과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성공압력은 일반계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았으나, 전문계 고등학생은 이를 지각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우리사회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대학입시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서 공부와 성공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이 부모로부터의 압력에 대해 주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거나, 혹은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와 성공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우리사회에서의 저출산과 부모세대의 학력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성취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하향화되어 초등학교 혹은 더 어린 시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고,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의 순으로 낮아져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에서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박영신 외, 2000; 조명환 외, 1994)과 일치하지만, 일부 연구(김혜원, 홍미애, 2007)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성공압력을 많이 받으면서도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은 이들

이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낮은 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교 진학 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보건복지가족부, 2008)와 학업/진로와 이탈 및 비행과 관련한 헬프콜(Help Call) 청소년전화 증가한다는 결과(보건복지부, 2007)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특히 낮은 것은 이들의 전반적인 성취수준이 낮은 것과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비행수준이 더 높다는 사회적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성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공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압력을 더 많이 받으며,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들(정유미, 김혁곤, 2002; 조혜미 외, 2007)과 일치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딸보다 아들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압력과 기대가 더 크므로 인해 남자청소년들이 공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가 사회 통념상 아들에 대한 부모의 높은 성취기대 때문인지 혹은 여성의 친밀성으로 인해 딸들이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인지 본 연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결과는 남자청소년의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더 많은 공부와 성공압력이 자칫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공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나 성공압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소득수준이 높거나 종교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자녀는 부모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 이 결과들을 통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고임금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학업이나 성공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거나(박재현, 2003)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조혜미 외, 2007)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더 많이 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성취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러

한 사회적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 스스로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부압력과 공부 중요성 인식간의 관계는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지만, 특히 초등학생에서 그 관련성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공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런 관계도 초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자녀들에게 공부와 성공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이를 내면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사회적 통념에 의한 추론이므로 추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공부 중요성 인식에 대해 부모의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이 모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압력과 달리 성공에 대한 압력은 자녀가 '미래'에 갖게 될 직업, 명예, 성공 등에 대한 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강조가 자동적으로 자녀로 하여금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에게 미래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수단으로서의 공부'를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학업성취를 한국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박영신 외(200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공부압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나 정신건강이 학업스트레스나 과도한 학습부담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경숙, 2006; 장혜정, 2005; 최병주, 1999)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공압력은 일반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비교적 먼 미래의 취업, 성취, 성공에 대한 압박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압박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 중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공부압력과 성공압력 모두가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지만,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두 가지 압력 모두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부압력이나 성공압력을 가중시켜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공부나 성공압력과 함께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 모든 집단에서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소옥현, 2005; 이영숙, 2001; 최희철 외, 2009; 한지선, 2006)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는 결과들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공부나 성공압력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일반계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중재효과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공부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완화되었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느끼는 공부압력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이 이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했던 박현선(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가중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고등학생, 특히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일반계 고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에 앞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탈 정도로 우리사회가 학벌과 성공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나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 모두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이들은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의 준비를 위한 학습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한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크게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공부나 성공에 대한 압력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이것이 많은 부분 과도한 학업부담으로부터 기인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이나 성공과 관련된 압박감 정도와 이것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국적인 표집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학업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와 갖는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절해 주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어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초점은 학교급에 따른 비교에 맞춰졌었다. 따라서 성에 따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혹은 거주지에 따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공부나 성공압력, 그리고 이것의 영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나 성공압력의 내용을 청소년들의 보고를 통해서만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부모의 보고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비교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 자녀의 주관적 인식으로 인해 과대평가되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쌍(paired test)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견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공부나 성공을 강조하는 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어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는 어머니의 압력이 아버지보다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박재현(2003)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자녀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압력 정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하나로 통합하여 응답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압력을 구분하여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경숙(2006).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김혜원, 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박경애, 이명선, 조은경(1994). **청소년의 문화풍속도: 청소년**

- 상담문제연구보고서 7.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경애, 조은경(1997). **청소년의 행복도: 우리 청소년 얼마나 행복한가**.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영신, 김의철(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 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 박재현(200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취압력 및 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지향성간 인과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1998). 부모-자녀 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1), 93-118.
- 보건복지부(2007). **2007 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복지뉴스(2007.03.02). 참여 정부복지확대숫자놀음. http://jcosw.org/gesipan/view.php?tb=tb_news&no=185&page=1&sd=&sg=&st=&search_yes=에서 2010년 1월 5일 인출.
- 소옥현(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현정(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리(2009).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아동학회지**, 30(1), 11-25.
- 장혜정(2005). 사교육이 아동의 학습동기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나은(2009). 초등학생과 교사에게 공부와 시험, 성적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 질적 사례를 통한 해석을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미, 김혁근(200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상담학회지**, 1(1), 1-22.
- 정현주, 이주리(2009).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평가의 관계에서 부모과정과 학교과정의 보호적-안정화 기능.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09-618.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학교), 16(2), 51-94.
- 조혜미, 김성실, 임혜경, 한성현, 송미라, 손부순(2007).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위생학회지**, 22(1), 67-74.
- 진미석(2009). **학습 효율화 지수**.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병주(1999). 초등학교 아동이 부모와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2009).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37-558.
- 한국일보(2006. 6. 29). 한국,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506/h200506291113721500.htm>에서 2009년 12월 28일 인출.
- 한지선(2006). 가족기능 중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기능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생자녀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nes,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3), 438-447.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접 수 일 : 2010년 1월 2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11일